

여야, MB수사 반응 온도차

민주당 “빠른 소환·총체적 수사 촉구”

한국당,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문제삼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여부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MB의 빠른 소환과 총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직접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현실화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MB수사를 불 때 일 반인이려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은 그런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진 않 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내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MB 정부에서 총 여섯 차례 사면이 있었는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기업인 74명이 특별사면됐다”며 “재벌 범죄인은 다 사면됐다 고 볼 수 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도 뇌물 성격이 분명해 보인다. MB정부에서의 사면이 다 대가 관계에 의한 것 아닌지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MB소환시점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 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백 의 원에게 MB수사 관련 언론보도가 사

실과 다르지 않다고 답한 것이 ‘피 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똑같이 진행해야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흘러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부패혐의로 낙인 찍어서 그 대상자가 구속돼야만 국민 감정이 해소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부작용과 적폐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보수정권 10년 간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어난 고발사건, 여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늘장 일변되고 오리무중이다”며 “왜 이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적폐청산 가지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하지 않는다. 비리가 있었다면 검찰권을 행사해서 엄단하라”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문 제에 대한 사건도 동일한 속도와 수 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게냐. 다 흘린 다. 다 단속이다.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나.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진실관계가 아니고 언론보도된 내용들이 그 안에서 진 술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 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찰에선 나름의 공보 준칙에 따른 것으로 안다. 피의사실로 인해 피의 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져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지원 “안철수-남경필, 사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만남 부인 못 하잖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안철 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남경필 경 기지사 간 오갔다는 이른바 ‘주 적’ 발언을 놓고 불거진 공방에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한다. 만만 건 부 인 못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제가 주적 발 언을 말씀드린 것은 안철수, 남경 필 두 분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해줬고 오비 이하기로 언론에 (선거연대 관련)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전 문제점을 제기한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안 전 대표와 남 지사가 주적 발언에 반박 입 장을 표명한 것을 지적하며 “전 공작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소설은 못 쓴다. 전 일생에 소설 한 번 안 써봤다. 어떻게 이 런 인신공격을 하는지 나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주적이란 말을 난 쓰지 않는다. 별로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한국 정치인이면 주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 지만 다 쓴다. 일반적으로 대북분 제 다루며 다 듣는 얘기인데 ‘나 주적발언 안했다(는 것은) 다 거 짓말 아닌가’라며 ‘저도 자주 안

쓴다. 전 그러한 움직임을 말씀드 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 당은 청산과 배척의 대상이때문에 잔류한 일부 중재파분들이 이 제 정리할 때”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속해있 으나 민주평화당과 함께 활동하는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 대한 처리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 대표가 ‘구정치 를 청산하고 합당 창당했다. 그런 데 아직도 구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전 일생 정치하면 서 처음 봤다. 우리가 통합에 속은 건 말하지 않겠다.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 적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다. 그런데 이제와선 비례대표이 상돈, 박주현, 장정숙에 대해 양 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열쇠가 될 것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 의에서 유승민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중진들, 홍에게 ‘소통하라’며 쓴소리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은 21일 당내 소통부채를 지적하며 홍준표 대표의 소통확대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상임위원장 연 석회의를 주재했다. 홍 대표는 이 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의 소통부채 를 지적하며 직·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의원은 “홍 대표는 왜 중진회의를 안하느냐”며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 대표가 앞장서서 당내 흠어진 이런저런 말 나오는 의원님들 또 초재선들과 소통을 꾸준히 가속화해서 이 난국을 풀 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우리가 지금 야당 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상황이 쉽지 않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지 도부를 선출한 이상 지도부를 위해 단합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자리 에 지금 안 계시지만 홍준표 대표 도 많은 경청을 해주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지금 상

황이 어려워 난국을 돌파하기 위 해 애쓰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 은 이야기를 듣고 고칠 건 고치고 타인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러이러하다고 말해달라”고 홍 대표에게 소통을 주문했다.

주호영 의원은 “여당은 권력의 힘으로 외형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야당의 단결된 힘은 내부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의 힘은 결국 단 합과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며 “당내 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보수 정당의 방향을 끌고 국민의 신뢰 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되게 김 원 내대표가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美, 北 추가적 독자제재 가능성 있어”

“지속적 압박 강화 차원서” 강경화 외교부장은 21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 한 추가적 독자제재 나설 가능성 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 이 말했다. 그는 다만 “감지기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압 박 강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 북한 문제와 관 련해 미국과 우리는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추 가적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가제재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